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최선”

목포해양경찰서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해경과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목포해경과의 특별한 인연은 11년 전 2010년 12월,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신안군 만재도 해상 전복사고 당시 구조된 사람들과 경비함정에서 출산하며 세상과 첫 눈을 맞이한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날’을 회상하고 서로 공감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전복된 선박서 15명 전원 구조

지난 2010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 6시. 늦은 날씨에 신안군 가거도에서는 육지로 향하는 선박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올라타고 있었다. 흑산중학교 가거도 분교에 재직 중이던 이승현 교사와 박소라 교사가 선박에 승선하며 육지로 갈 준비를 마쳤다. 출항 후 몇 시간 남짓 15명을 태운 선박은 ‘웅’ 소리와 함께 전복되기 시작했다. 이 교사 등 승객들은 차가운 바닷물로 뛰어내리고 뒤집혀진 배 위에 올라가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 맞아 특별한 만남 ‘크리스마스 기적’, ‘경비함정 출산’ 인연

활동안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이들 사이에 목포해양경찰서 구조함정이 기적처럼 다가왔다.

목포해경은 선박이 전복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교사, 학생 등 15명 전원 구조에 성공하며 이 사고는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 공로로 목포해경 3009함은 이듬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가 주는 ‘바다의 의인상’을 수상했다.

구조된 이들은 사고 이후 해양경찰과의 특별한 인연을 간직한 채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특히 이 계기를 통해 고난을 함께한 이 교사와 박 교사는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의 동반자가 됐다.

박 교사는 “기상 악화 속에서 목숨 걸고 저희를 구조해 주신 해양경찰관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며 “어려

운 여건 속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을 항상 믿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들은 경비함정에서 태어나고, 딸은 헬기를 타고

지난 2005년 11월 5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산모 정선숙 씨가 조산의 징후가 있다는 다급한 긴급 이송 요청 신고가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접수됐다.

목포해경은 약천후로 헬기 운항이 불가해 경비함정을 급파, 풍랑주의보 속에서 4-5m의 높은 파도와 비바람을 뚫고 산모와 태아를 위한 긴급 이송을 시작했다.

정 씨가 경비함정으로 옮겨지면서 경비함정의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갔다. 산모의 진통이 심해지면서 예정일을 3개월이나 앞둔 출산이 시작됐다. 이송을 시작한 경비함정에서는 산모의 출산 임박으로 전 직원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목포 소재 병원과 연락을 통해 산모의 호흡, 현재 상태 및 분만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조치했다. 함정이 뱃줄을 자르고 직원들은 물을 끓여 아이에게 목욕을 시키는 등 침착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해양경찰에 대한 고마움으로 아들의 이름을 출산 당시 경비함정의 명칭이었던 ‘해우리’로 짓기로 했다. 해우리는 ‘바다’와 ‘우리’의 합성어로 바다의 가족,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미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개월이나 일찍 태어난 남해우리 군은 태어나자마자 4개월 간 병원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다.

당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정 씨의 사연을 전해들은 해양경찰은 ‘해우리 살리기 모금 운동’을 통해 순식간에 1,4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정 씨에게 전달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해양경찰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정 씨는 이후 2007년 1월에도 출중한 해양경찰 헬기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돼 건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지난 2010년 12월 신안군 해상에서 전복사고로 인해 구조됐던 이승현씨, 박소라씨를 만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목포해경 제공

강한 딸을 출산하기도 했다. 정 씨는 “두 아이를 해경의 도움으로 출산해 평생 해양경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등학교가 된 남해우리 군은 “해양경찰에 대한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생명의 은인인 해양경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많은 사건·사고를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그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설 68주년을 맞는 해양경찰은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바다에서 ‘바다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목포=김동균 기자



진도군의회는 최근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진도군의회 제공

진도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해야”

현행 1km→500m로

진도군의회가 여객선 시계 제한을 현행 1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됐지만 취약한 기반 시설, 기상 영향으로 인한 잦은 결항 등으

로 섬 주민들의 불편과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여객선 시계 제한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해 섬 주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에 위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군의회는 여객선의 전자 관측 장비

확충, 사회간접자본 재원 투입 등 안전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순배 부의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출렁다리 준공 서남해안 체류형 관광지 만들기 박차

강진군은 최근 최근 이승욱 군수, 위성식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인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준공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개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개동선언, 기념식수 식재 순으로 진행됐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1.8m의 폭과 150m의 길이, 높이

15m로 설치해 지난 7월 15일 개통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우도 돌레길 코스와 연계해 짜릿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모노레일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했으며 교통약자들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위해 가우나루에서부터 섬 정상 청자타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길이는 264m, 차량 30인승 2대로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청자타워까지 올라가는데 5분 정도 소요된다.

관광객 김영필씨는 “이전에 가우도를 방문했을 때는 다리가 아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어 아쉬웠다”며 “모노레일이 설치돼 가파른 정상까지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가우도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가우도 모노레일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있으며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2,000 원이다.

이승욱 군수는 “관심과 협조로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개통할 수 있었다”며 “가우도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 거리를 연계해 가우도가 서남해안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목포경찰서, 범죄예방 예산 확보 설명회

목포경찰서는 최근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2022년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치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박창수목포시의회의장과 시의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 치안대책을 설명했다.

목포경찰은 치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불안 환경 해소를 위해 최근 경찰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재난 및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CCTV 설치, 로고젝터 설치 등 환경개선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목포시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박창수 의장은 “치안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강진, 아동학대 예방 915 캠페인

강진군은 최근 버스터미널 앞에서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강진의료원,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 인직원 20여 명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 915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법상 자녀 징계권(제915조) 폐지를 널리 알리고 부모 자

녀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 및 공감에 기반한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 올바른 양육법을 알리고 아동학대 정의, 유형, 학대 의심 징후 등을 내용으로 한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 피켓 등으로 신고 방법을 알렸다. /강진=한태선 기자



무안 일로읍 변영희, 불우이웃돕기 나눔

무안군 일로읍은 최근 일로읍 변영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찬일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변영희가 되겠다”고 말했다.

허재경 읍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주시는 변영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원물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원물품은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진도,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진도군보건소가 최근 군청 민원실 앞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청 직원과 기관·사회단체 회원, 군민들이 ‘사랑의 생명나눔 실천’ 일환으로 적극 동참했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인구 고령화 등으로 혈액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헌혈

제한 사항이 증가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원활한 혈액수급 공급을 위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로 부족한 혈액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